

광복60년, 남북관계 현황과 발전방향

허문영(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구목적

금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해이다. 조국 광복 60주년이자, 6·15 남북공동성명 5주년이다. 또한 독일통일 15주년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족 분단 60년이 더욱 절실히 느껴지기도 한다. 게다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에 따르면, 핵 문제 해결 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체제 모색의 원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남북한은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1971년 8월 이산가족 재회회담을 시작으로 약 500회 이상의 각종 남북대화를 진행해 왔다. 교역량이 7억 달러를 넘어서 남한이 북한의 제2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인적교류도 활발해져 1989년 이후 2004년까지 총 85,400명(남한 81,470명, 북한 3,930명)이 오고 갔고, 금강산관광객의 경우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 그 백미를 이뤘다. 한 많은 이산가족문제도 11차례 상봉과 금강산상설면회소공사로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5년 3대행사(6·15통일대축전, 8·15 민족대축전, 10·10 당창건60주년)를 진행하면서, 8·15 행사 전날 국립현충원을 진격 방문, 참배해 남쪽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6년 아시안 게임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뿐 만 아니라, 북핵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진행에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대내외 정세는 여전히 좋지 않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및 일본과 역사 및 영토분쟁을 겪은 바 있다. 중국은 2002년 2월 공식출범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를 지방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자국사에 편입시켰고, 2003년 7월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수비를 무장경찰에서 군대로 전환시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한반도에 대한 진출준비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일본 또한 역사교과서 왜곡과 우익인사들의 망언을 지속하는 가운데 급기야는 2005년 3·1절 전날 주한일본대사가 서울에서 독도를 자국의 것으로 주장하는 기자회견까지 감행하였다.

국내적으로도 남남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보·혁 갈등이 2003년 3·1절 행사를 57년 만에 다시 ‘갈라진 행사’로 치루면서 전면화 되었다. ‘반핵 반김’의 보수진영과 ‘반전 반미’의 진보진영으로 나뉘어져 이후 이라크 파병문제, 주한미군 철수문제, 국가보안법 철폐문제 등에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해외 순방외교 중이던 대통령이 현지에서 반대를 표명하는 일도 겪었다.

과연 우리는 광복 60주년, 분단 60주년이 된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통일 상태로 발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위기와 갈등 국면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본 논문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예상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어떻게 볼 것인가?

1. 한반도 통일문제의 특징 : 이중성
2. 분석의 자세 : 균형·주체·미래
3. 분석의 대상 : 한반도 분단구조
4.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구상: 한반도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수립
5. 한반도 분단구조 극복과 통일의 관계 : 평화통일 5단계

III. 어디까지 왔는가?

1. 현황 : 적대적 대결에서 경쟁적 공존을 넘어 협력적 공존으로
2. 정책 평가 : 평화공존 대 실리공존

IV.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1. 기본 방향 : 평화한국 건설
2. 세부 실천방안 : 무지개전략 추진

V. 맺음말